

하이브 SM 인수전 '제2라운드' 돌입

유상증자 가져본 변곡점 될 듯... 새 경영진 후보 관심 하이브 소액주주에 러브콜, SM은 전략적 제휴 고심

가요계 최고의 '빅딜'로 기록될 하이브의 SM 인수전이 가져본 신청 결과와 주주총회를 앞두고 '제2라운드'로 돌입하는 모양새다.

하이브는 안정적인 SM 경영권 확보를 위해 소액주주를 대상으로 공개매수를 시작했고, 새 경영진 후보 인선 작업에 들어갔다. SM은 인수전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가져본 신청 심문기일에 대비하는 가운데, 카카오와의 제휴 전략을 가다듬고 있다.

13일 가요계에 따르면 하이브는 다음달 말 있을 SM 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제안을 통한 경영진 후보 인선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성수·탁영준 공동대표 등 SM 이사 4명의 입기는 다음달 만료된다.

주주제안은 주총 6주 전까지 제출해야 하는데, 이번 주총 주주제안 마감일은 16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하이브는 이번 주 내에 원하는 새 경영진 진용을 꾸려야 한다.

가요계에서는 SM 새 이사진 후보로 과거 SM에서 근무하며 걸그룹 에프엑스, 그룹 샤이니·엑소 등과 작업한 민희진 현 아도어 대표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민 대표는 아도어 소속 뉴진스를 글로벌 K

팝 걸그룹으로 키워낸 인물이다. 이에 대해 하이브는 "주주제안과 관련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최종 명단을 확정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하이브는 지난 10일 이수만 SM 전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 14.8%를 매입하겠다고 발표하며 단숨에 1대 주주로 올라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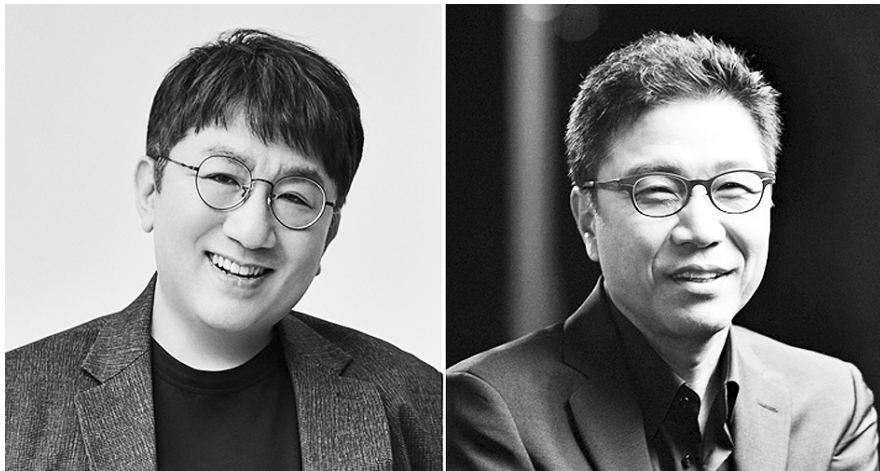
하지만 카카오·얼라인과 손잡은 현 SM 경영진에 맞서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확보하려면 공개매수를 통해 약 40%까지 지분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다.

현재 SM 지배구조 상 소액주주의 지분율은 60%를 넘는다.

이에 하이브는 소액주주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한편, 이를 뒷받침하고자 앞으로 그려나갈 새로운 SM과 K팝의 비전을 제시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SM과 하이브는 K팝의 세계화라는 대업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각자 축적한 역량을 종합해 레이블과 플랫폼을 필두로 한 다양한 사업 영역에서 강력한 전략적 시너지를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이브의 SM 인수 과정에서 주요한 변곡점은 이수만이 SM을 상대로 낸 '신주·전환사채 발행 금



방시혁 하이브 의장(왼쪽)과 이수만 SM 전 총괄 프로듀서(오른쪽). 연합뉴스

지' 가져본 신청의 향배다.

카카오가 제삼자 방식의 신주 발행과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SM 지분 9.05%를 확보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로, 법원이 이수만 측의 손을 들어준다면 카카오가 SM 제2대 주주로 올라서는 것에 급제동이 걸리게 된다.

가처분 신청 사건 자체는 이수만과 SM 사이의 법정 다툼이지만, 하이브로서는 그 결과에 따라 SM 인수전이 훨씬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다는 의미다.

가처분 심문기일은 다음 주로 알려졌다.

이수만 측은 법정에서 SM의 신주·전환사채 발행이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SM의 현재 경영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점도 언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SM 현 경영진도 대응 전략 마련에 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SM은 우선 카카오와의 전략적 제휴 관계와 이를 통한 시너지 효과 등을 주주들에게 구체적으로 발표하는 방안을 준비 중으로 전해졌다.

SM 현 경영진과 손잡은 얼라인 파트너스 측이 오는 15일까지 카카오 제휴 관련 세부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가요계의 한 관계자는 "SM은 하이브가 이수만 최대 주주의 지분을 매입하는 것은 전체적인 K팝 산업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SM이 카카오와 제휴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기업 밸류 주주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주주들에게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배우 유아인 마약감정 2~3주 걸린다

결과 통보 후 추가조사 방침



배우 유아인(37·사진·본명 엄홍식) 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유씨를 추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3일 기자회견에서 "국과수 감정은 2~3주 걸릴 것으로 본다"며 "최종 감정 결과와 통보받으면 출석 요구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신병 확보를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감정 결과를 보겠다"고 덧붙였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5일 유씨가 미국에서 입국한 직후 소변과 모발 등을 채취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하고 약식으로 조사했다.

경찰은 유씨의 소변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감정 결과를

국과수로부터 통보받았다. 모발 감정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유씨가 병원 여러 곳에서 일명 '유유 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을 의료 외 목적으로 상습 처방 받은 정황이 있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 8~9일 유씨가 프로포폴을 처방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서울 강남구와 용산구 일대 성형외과 등 병·의원 여러 곳을 압수수색해 관련 의료기록을 확보했다.

연합뉴스



영화 '인어공주' 연합뉴스

TXT,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3위

전주 1위 이어 연속 차트인

그룹 투모로우바이투게더(사진·TXT)가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2주 연속 '톱 3' 안에 들었다.

12일(현지시간) 빌보드가 올린 차트 예고 기사에 따르면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미니 5집 '이름의 장: 템피테이션'(TEMPTATION)은 '빌보드 200'에서 전주 1위를 차지

한 데 이어 이번 주 3위에 올랐다.

'빌보드 200'에서 2주 연속 3위 안에 든 K팝 아티스트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이외에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유일하다.

'이름의 장 : 템피테이션'은 유혹을 극복하고 성숙함을 향해 도약하는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이야기를 담았다. 이 음반은 발매 후 일주일 동안에만 218만장이 팔리며 큰 사랑을 받았다.

연합뉴스



'인어공주' 실사판 5월 국내 개봉

헬리 베일리 주연

영화 '인어공주'가 오는 5월 국내 개봉을 확정했다고 월트디즈니컴퍼니 코리아가 13일 전했다.

동명 애니메이션을 실사화한 '인어공주'는 인간 세계를 동경하는 인어왕국의 공주 아리엘의 이야기를 그린다.

흑인 R&B 가수 겸 배우 헬리 베일리가 아리엘을 연기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헬리 베일리 외에도 멀리사 매카시, 하비에르 바르뎀, 조나 하우어 킹, 아키페나등 유명 배우들이 출연한다.

'시카고'(2001), '게이샤의 추억'(2005) '캐리비안의 해적: 낯선 조류'(2011) 등을 연출한 톰 마셜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음악에는 디즈니 '미녀와 야수', '알라딘'의 애니메이션과 실사 영화를 담당했던 앨런 멩켄이 참여했다.

연합뉴스

Table with 5 columns: KBS1, KBS2, MBC, JIBS/SBS, EBS1. Lists TV programs and their times for the day of 14th.

오늘의 운세 14일. Includes a horoscope for the day and a table of zodiac signs with their corresponding lucky/unlucky days and advice.